신한은행, 창업법인 길라잡이 핸드북 발간

신한은행은 신규법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창업법인을 위한 혁신성장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핸드북은 오는 18일부터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출시예정인 '신한금융 혁신성장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롯데하이마트, 공군본부에 3천만원 상당 가전제품 기증

롯데하이마트는 17일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공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가전제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공군에 청소기 140여대와 전자레인지 90여대로 구성된 3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전달된 가전제품은 공군 장병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왼쪽)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광동제약, 임직원 대상 '광동인의 소확행' 사진전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가산천년정원에서 임직원 대상 사진공모전인 '제5회 가산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동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3점의 작품이 접수돼 구성원의 큰 관심을 모았다. 회사는 이 중 40여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내달까지 전시한다. /광동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보보호경영 선포식 개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7일 오전 서울 용두동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경영 선포식은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정보를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보호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가슴 확대술의 오해와 진실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적당히 볼륨감 있는 가슴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 라인을 잘록해 보이게 만들어 옷맵시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가슴이 커 보이는 보정속옷이나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식품,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는 정체불명의 화장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들 제품은 가슴 사이즈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나 호르몬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부작용만 남길 뿐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빈약한 가슴 때문에 콤플렉스를 겪고 있거나 모유수유 후 처진 가슴 때문에 고민이라면 처음부터 '가슴확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가슴확대술(유방확대술·augmentation mammaplsty)'은 작은 가슴을 인공 보형물을 통해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미용성형시술 중 하나다. 대부분 '가슴확대술'하면 식염수 백이나 실리콘 백을 떠올리는데, 이들 제품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나 촉감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모양이나 촉감이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코헤시브젤(코젤) 백을 더욱 선호하는 편이다. 코헤시브젤은 실리콘 백에 비해 감촉이 부드럽고 이질감이 적은데다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터질 위험이 적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간혹 미혼여성들이 모유 수유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가슴확대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헤시브젤은 모유 수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유방암 발병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방법은 유방아래나 겨드랑이를 절개한 후 원하는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해주면 된다. 단, 가슴성형은 수술부위가 넓은 만큼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하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숙련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구겨져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고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형구축'은 삽입된 보형물 주위에 두꺼운 피막이 형성돼 점차 딱딱해지는 증상으로 가슴성형 부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보형물 제거 원인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구형구축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학계에서는 이물반응, 불순물 실리콘의 미세누출, 혈종, 감염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만일 가슴확대술을 시행한 후 염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바로 해당병원을 찾아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며, 최소 2~3개월 정도 회복기간을 거쳐 재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가슴확대술을 받았다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MRI촬영을 시행하여 보형물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X-레이 6개월에 한 번씩 촬영해 보형물로 인해 주변조직에 이상이 생겼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술결과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술 전 반드시 집도의가 성형전문의인지, 해당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현대百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2.5억 전달

자녀 학비, 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

'제복 공무원'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의 진정성 있는 지원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17일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진행된 '순직 소방관 가족 지원금 전달식'에는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17일 오전,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사진 왼쪽 네번째)에게 순직 소방관 자녀 지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전달된 지원금은 소방청에서 추천한 순직 소방관 자녀(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파랑새 장학금(학비 200만~300만원 지원)'과 유가족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1년째 장학금·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유가족 총 497명에게 15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순직 경찰관과 공무 중 다친 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90명에게 16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소방 공무원의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자녀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파랑새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성장, 재능 육성, 의료 및 재활 분야 등 3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난치병 환아 지원·저소득층 육상 유망주 지원 등 총 2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모집

동원그룹-무역협회 공동 주최

동원그룹이 '동원그룹 x KITA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원그룹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식품, 패키징, 물류, 건설 등 동원그룹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기술 역량 등을 갖춘 스타트업이다.

동원그룹은 지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행사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25일 서울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스타트업 IR 피칭'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미팅'을 겸한 '오픈 이노베이션' 본 행사를 진행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인사

◆ NICE엘엠에스 ◇ 신규선임 △ 대표이사 박용찬

◆ 현대경제신문 △ 이사(광고국) 조민영

◆ 청년일보 △ 산업·금융 총괄 부국장 정준범 △ 온라인뉴스팀장 김두환

◆ 한국면세뉴스 △ 사장 겸 편집국장 박홍규

부음

▲ 서영섭(전 한국은행 마산지점장·전 경남은행 상무)씨 별세, 서정순·정숙·혜숙·동수(세원지앤씨 상무)·현주씨 부친상 = 17일 오전 4시24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30분. (02-3410-6919)

▲ 최용갑씨 별세, 최일(동신대학교 총장)·건(미국 실리콘밸리 수석연구원)·희씨 부친상, 최영주·김지정씨 시부상, 최용훈(광주케이블 TV 대표이사)씨 장인상 = 16일 저녁, 광주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19일 오전 8시 20분. (062-521-4444)

▲ 이영숙씨 별세, 김진수(한겨레신문사 출판사진부 기자)·지희(파주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선희·미희씨 모친상, 황윤경씨 시모상, 전명열(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변전건설부 차장)·라승재(씨텍 운영팀 근무)씨 장모상 = 17일 오전 4시5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30분. (031-900-0444)